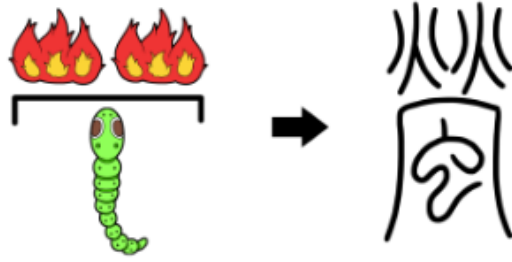


3  
-  
301

회의문자①



螢

반딧불  
형

螢자는 '반딧불이'나 '개똥벌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반딧불이는 딱정벌레목 반딧불이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반딧불이나 개똥벌레는 같은 곤충을 일컫는 말이다. 반딧불이는 공무늬에 있는 발광기로 빛을 내는 곤충이다. 그러니 螢자는 虫(벌레 충)자와 熒(등불 형)자를 결합해 빛을 내는 반딧불이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옛사람들은 반딧불이를 잡아 어두운 밤에 책도 읽었다고 하니 등불을 뜻하는 熒자와 虫자의 조합은 매우 재미있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

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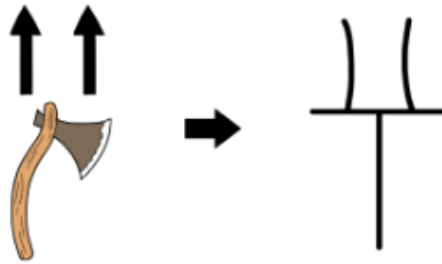
소전

螢

해서

3  
-  
302

지사문자①



兮

어조사  
혜

兮자는 어조사나 감탄사로 쓰이는 글자이다.兮자의 갑골문을 보면 T자 위로 두 개의 획이 뻗어 나가는 모습이 𠂇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兮자는 본래 도끼를 찍으면서 나는 소리를 뜻했었지만, 지금은 단순히 어조사나 감탄사로만 쓰인다.

𠂇

갑골문

兮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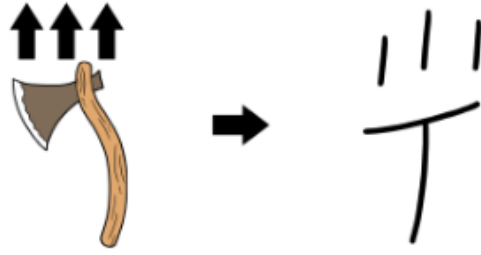
兮

소전

兮

해서

지사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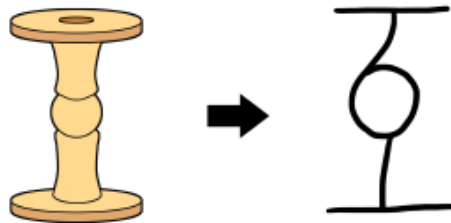
乎

어조사  
호

乎자는 ‘~느냐’, ‘~지?’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乎자의 갑골문을 보면 T자 위로 세 개의 획이 뿔어 나가는 모습이 𠂇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乎자는 T자를 도끼를 그린 것으로 보고 도끼 찍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乎자의 기원으로만 보면 兮(어조사 헤)자와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은 유래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문장을 연결하거나 의문하는 어조사 역할만을 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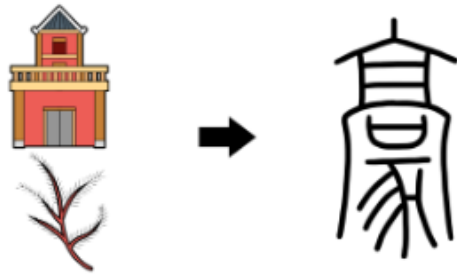
互

서로 호:

互자는 ‘서로’나 ‘번갈아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互자의 금문을 보면 위아래 획과 가운데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지금의 互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실을 감는 도구인 ‘얼레’를 그린 것이다. 얼레는 감은 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위아래를 넓게 만든 도구이다. 그래서 互자의 본래 의미도 ‘얼레’였다. 그러나 줄을 감는 방식에서 ‘서로’나 ‘번갈아들다’, ‘교차하다’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후에 糸(실 사)자를 더한 紼(얼레 호)자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毫

터럭 호

毫자는 '가는 털'이나 '붓끝'을 뜻하는 글자이다. 毫자는 高(높을 고)자와 毛(털 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高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으로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다. 이렇게 '높다'라는 뜻을 가진 高자에 毛자를 더한 毫자는 '높게 자란 털'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길게 자란 털일수록 끝이 더 가늘게 보인다. 그래서 毫자는 털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가느다란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털끝'이나 '가늘다', '조금'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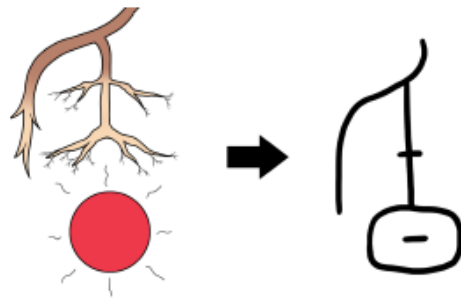
毫

소전

毫

해서

회의문자 ①



昏

어두울  
훈

昏자는 '어두워지다'나 '희미하다', '날이 저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昏자는 日(해 일)자와 氏(각시 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氏자는 '근본'을 뜻하는 底(근본 저)자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뿌리를 그린 것이다. 昏자는 이렇게 나무뿌리를 그린 氏자 아래로 日자를 그려 해가 땅속 깊숙이 사라져 매우 어둡다는 뜻을 표현했다.

昏

갑골문

昏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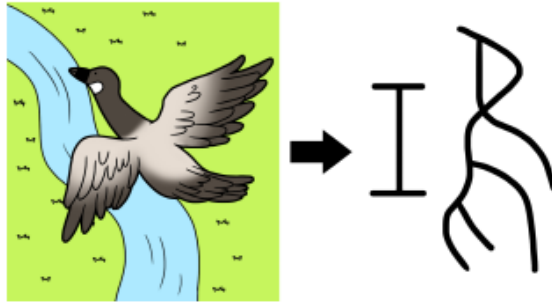
昏

소전

昏

해서

형성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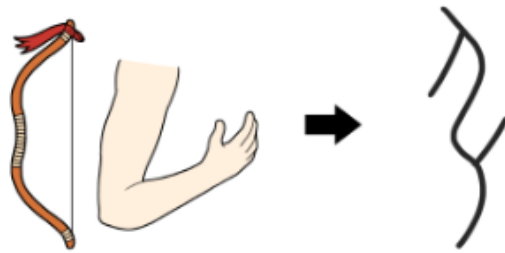
鴻

기러기  
홍

鴻자는 '큰 기러기'나 '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鴻자는 江(강 강)자와 鳥(새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기러기는 물가에서 먹이 잡기를 하니 江자와 鳥자의 결합은 적절한 조합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鴻자를 보면 工(장인 공)자와 鳥자가 鴻 결합한 형태였다. '기러기'를 뜻하기 위해 工자가 발음역할로 쓰인 것이다. 후에 소전에서는 工자가 江자로 바뀌면서 오히려 기러기의 특성과 더 잘 어울리게 되었다.鴻자는 때로는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鴻자가 다른 새들보다 큰 기러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작은 기러기는 雁(기러기 안)이라고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弘

클  
홍

弘자는 '넓다'나 '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弘자는 弓(활 궁)자와 厶(사사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弘자의 갑골문을 보면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그린 弓자가 弘 그려져 있었다.弘자는 弓자에서 파생된 글자다. 弓자가 활시위를 당겼다가 놓는 것을 뜻했다면 弘자는 화살이 아주 멀리 날아가거나 활시위를 놓는 소리가 크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弘자는 '크다'라는 뜻을 가진 宏(클 굉)자와 결합해 '넓다'나 '크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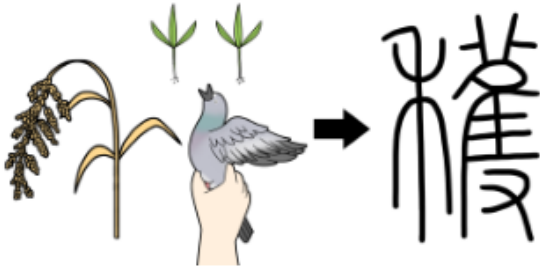
禾

벼 화

禾자는 '벼'나 '곡식', '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禾자는 벼가 여물어 고개를 숙인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모든 곡식을 총칭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禾자의 갑골문을 보면 고개 숙인 이삭과 뿌리가 묘사되어 있었다. 인류가 최초로 재배했던 곡식이 '조'였기 때문에 禾자는 조가 익어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곡식'이나 '벼'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禾자는 곡식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곡식의 종류나 가치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또 과거에는 벼를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돈이나 세금과 관련된 글자를 만드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穫

거둘 확

穫자는 '(벼를)거두다'나 '벼 베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穫자는 禾(벼 화)자와 獲(자 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獲자는 풀숲에 있는 새를 손으로 잡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다. 穫자는 이렇게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獲자에 禾자를 더한 것으로 '벼를 획득하다' 즉 '벼를 수확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지금의 穫자는 벼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얻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